


42Seoul 클러스터에서 좋은 의자에 앉아보고 편안함에 충격을 받았다
 뜬금없이 펄펄 쓰긴 해도 일단 찌뽀이 성격을 기본 값으로 가진 나인데
 자주 쓰는 의자에 돈 아끼지 말아야겠다 싶어 앉았던 의자가 뭔지 알아보았다

그런데 알고 보니 앉았던 의자는 생각보다 살짝 비싸고 안 예뻐서
 어쩌다 보니 그 의자가 무엇인지 알려주던 스투드에서 알려준 다른 의자를 사게 되었다(?)
 뭐 어쨌든 사서 잘 쓰고 있으면 된 거지
 (지금 산 의자 앉아서 글 쓰고 있음)

	<p>코아스 에르체 메쉬의자 OSCH0800HAA (... 가구/조명>의자>책상 의자, 요약정보 : 책상 의자 / 일... prod.danawa.com</p>
---	---

<p>HOP 신규가입</p> <p>이벤트 적립금 10,000</p>	<p>당신의 가장 좋은 선택을 만듭니다. - GS SHOP</p> <p>혜택 1 혜택 2 혜택 3 혜택 4 event.gsshop.com</p>
---	---

	<p>[코아스]에르체 메쉬의자 헤드 OSCH0800... with.gsshop.com</p>
---	---

구글링, 다나와, 네이버 쇼핑을 찾아본 결과
 9월 초에 체크카드 쓰는 고졸 백수가 의자를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
 GS SHOP에서 이벤트 적립금을 받아서 다나와 최저가로 의자를 사는 것이었다
 글 쓰는 시점에서는 여전히 GS SHOP이 최저가긴 한데 좀 올랐다
 잘 알아보고 최저가 여부 할인 적용 여부를 꼼꼼히 체크하고 사자
 나는 20만 5천 원 정도에 친구 것까지 두 개 샀다

좌방석은 패브릭(천), 인조가죽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
 내가 산 곳에서는 선택한다고 추가 비용이 들지는 않았다
 오염에 약하긴 해도 보송보송 오래 앉기 좋을 것 같아서 패브릭을 골랐다
 좌판을 따로 팔아서 의자는 좌판만 교체하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을 듯하다

설명서에 보니 조립하면 교환/환불이 불가하다고 하니
 나처럼 무지성 조립하지 말고 꼼꼼히 체크해 보고 조립할 것을 권장한다
 또 조립할 때 감당이 묻을 수 있으니 패브릭에 안 묻게 조심하자!
 쇠로 된 부분에 묻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손 두 번 정도 씻으면서 조립했다



DIY 제품이라 직접 똑딱똑딱
뒤에는 박살이 난 상자
웁기기에 꽤 무거웠다



진짜 프로그래밍 배워서 그런가
 42Seoul에서 매뉴얼을 강조했던 게 인상에 남아서 그런가
 예전엔 설명서 잘 안 읽어 봤는데
 이제 뭐든지 설명서부터 찾아서 읽는다



이 조립 렌치가 진국이다
사용자의 그림을 고려한 저 손잡이 모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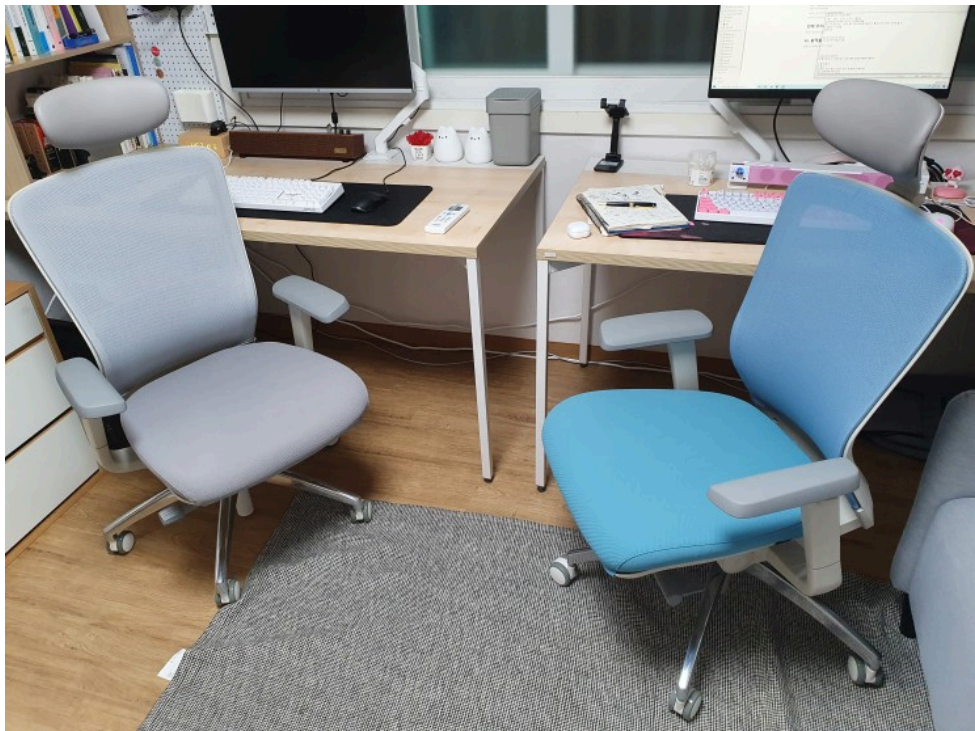
출처

모니터 암 조립할 때 이런 L형 육각렌치 쓰다가

위 조립 렌치 쓰니까 혁명이었다
손에 쇠 냄새도 안 배고 정말 편했다



조립에 필요한 모든 나사는 별도의 드라이버 필요 없이
제품과 같이 동봉된 저 조립 렌치 하나로 조일 수 있다



전방 샷



후방 샷

생략된 부분이 많지만 어쨌든 완성!

생략된 과정 중에 오발에 캐스터(바퀴) 끼우는 게 제일 까다로웠다
뭔가 쑥 들어가는 느낌이 잘 안 드는데 잡아당겼을 때 잘 안 뗀다는 정도로만 끼우면 될 듯하다
이런 모호한 게 제일 싫다 ㄹ

지난번에 산 모니터 암과 의자의 시너지가 썩 괜찮다
모니터 암으로 모니터와 눈높이를, 등받이 고정환 의자로 높이를 잘 맞추면
헤드레스트가 머리 뒤에 닿고 등도 등받이에 고정돼서 편안하고 안정적인 자세가 나온다

먼저 배송 온 친구 의자 앉을 때는 발도 바닥에 안 닿고
자꾸 몸이 앞으로 당겨지다 보니 헤드레스트에 머리가 안 닿아서
이럴 거면 헤드레스트는 왜 있냐 하며 의자 탓했는데 의자 문제가 아니었다 ㅎㅎ...
얼른 안경도 사고 자세 교정해야지



출처

